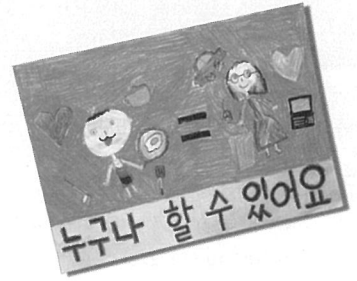




무료 학생건강검진 현장을 가다

- 경기북부센터 사회공헌활동 실시



고개를 든 순간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완강히 채혈을 거부하던 학생이 스스로 채혈 실로 들어온 것이다.

지난 3월 25일(금) 경기북부센터는 특수교육기관 '송민학교(의정부시 소재)'를 방문해 무료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하루 전인 24일(목)에는 경은학교(남양주시 소재) 학생건강검진을 마쳤다. 학생건강검

진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건강 상담과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검진이다. 물론 특수교육 기관도 포함이다. 그러나 지체장애, 정신장애 학생들은 이동 문제와 진료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학생의 안전한 채혈을 위해서는 2-3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검진버스를 이용한 흉부 X-Ray 검사



다소 쉬웠던 혈압측정 및 색약검사



혈액형 검사

검진을 기피하고 있다. 평범한 학생들도 채혈을 무서워하는데 장애학생들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다.

송민학교에 들어선 느낌은 학생들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노란색 스쿨버스가 많이 있다는 점을 빼곤 어느 학교와 다르지 않았다. 송민학교는 2013년 3월에 개교한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설립한 공립특수학교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검진하는 보건실로 향하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센터 직원들은 검진 준비를 마치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진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보건실 앞에서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을 자주 다니는 학생들은 경험상 흰 가운을 입은 경기북부센터 직원들을 아플 때마다 병원에서 마주쳤던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듯하였다.

혈압검사와 청력검사를 하는 곳에도 학생들은 검진을 거부하여 진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원들의 따뜻한 웃음으로 설득을 하며 검사를 진행하였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학생들인지라 분명 쉽지 않은 검진이었다.

채혈의 경우, 검사를 받는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송민학교에서는 지적 장애 학생의 채혈을 위해서는 성인 2~3명이 잡는 경우가 있다. 강압적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취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검진 중에 가장 완강히 거부하는 학생이 생겼다. 너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 마지막으로 다시 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 학생에서 채혈을 마친 학생이 다가가 하나도



구강검사



건강상담 장면



채혈장면

아프지 않다고 전했다. 물론 선생님이 채혈을 무사히 마친 학생에서 부탁한 것이다. 그 후 다른 학생의 채혈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개를 든 순간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완강히 채혈을 거부하던 학생이 스스로 채혈실로 들어온 것이다.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였다. 물론 무서워하였지만 무사히 채혈을 마치고 돌아갔다.

송민학교 김요륜 보건교사는 “특수교육기관 특성상 세심한 진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검진에 어려움이 있어 검진 버스를 이용한 출장 무료검진이 필요했다”고 했다. 또한 “협회에서 검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정보도 제공해 줘 앞으로의 건강보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쉽지 않은 특수교육기관 학생건강검진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히 사회공헌 활동을 몸소 실천한 경기 북부센터 식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협회는 2016년을 사회공헌활동 원년으로 선언했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협회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